

## 감사의 글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제15대 이사장직을 마치며 2023년을 보내는 문턱에서 회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지난 2년 동안 학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에 힘입어 제15대 집행부가 무사히 임기를 마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2020년부터 시작한 COVID-19로 많은 학회 행사에 차질이 있었지만 다행히도 제가 임기를 맡은 2022년부터는 대면 활동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하게 2년 동안의 임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의 제15대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젊고 새로운 이사진으로 집행부를 만들어서 보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존 활동에 접목시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진료지침 위원회를 창설하여 현재 우리 학회에서 제작한 진료지침서를 재정비하고 향후 계획하고 있는 진료지침서 집필과 관련해서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단순히 진료지침서의 질 향상은 물론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원고들이 우리 학회의 국영문 학술지인 AARD와 AAIR의 종설 원고로도 투고되어 학술지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2022년 춘계학술대회는 학회 창립 50주년 행사로 성대히 개최되었는데 반세기를 걸어온 학회의 역사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였고 향후 우리가 나갈 방향도 고민해 보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2년간 AAAAI, EAACI, APAAACI 등 여러 국제학회들과 공조한 결과 많은 외국 학자들의 강의를 포함한 학술대회 개최를 통하여 우리 학회의 국제적 위상을 높인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학술대회 때마다 최신의 학술내용이 논의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하였고, 학회원들께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COVID-19으로 익숙하게 된 비대면 온라인 강의는 일부 그대로 진행하였는데, 특히 직접 현장에서 강의를 듣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교육강좌를 계속 비대면으로 진행하였고 강좌 후에도 재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학회의 얼굴인 영문 학술지 AAIR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Impact Factor 4.6라는 높은 평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세계적인 알레르기 전문학술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012년에 “천식과 알레르기질환” 한글판 교과서 2판이 발생된 이후 11년 만에 3판 교과서 출간을 저의 임기 내에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 교과서 출판과 관련해서 원고를 작성해주신 교수님들과 수정과 검토에 헌신적으로 일해주신 교과서 편찬위원회 선생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향후 모든 회원님들의 지식 함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제 임기를 마치며 지난 2년간을 돌아보니 무언가를 해내었다는 것보다는 제가 정말 많은 것을 얻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큰 과오 없이 임기를 마무리하게 된 것은 여러 회원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유능하고 헌신적인 이사진, 훌륭하신 선배님들의 도움입니다. 이 지면을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바라고 여러 회원님들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